무너진 전북 독주시대…선두 경쟁, 갈수록 흥미진진

38 vs 38 vs 37…이보다 더 뜨거울 수는 없다

〈전북 승점〉 〈서울 승점〉 〈울산 승점〉

전북, 2위 서울에 다득점 앞선 1위
한 경기 덜 치른 울산도 3강 체제
세 팀 모두 리그 우승 위해 총력전
감독들 전술·리더십도 관전포인트

전북 모라이스 감독

서울 최용수 감독

울산 김도훈 감독

스포츠의 흥미 유발 요소 중 하나는 경쟁이다. 치열하게 다투면 보는 재미는 커진다. 한쪽의 일방적인 페이스로는 관심 끌기가 쉽지 않다. 지난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승점 1점차 우승 경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웠다.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수년 간 K리그1은 흥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로 전북 현대 천하였다. 투자를 많이 한 전북을 당할 자가 없었다. 특히 전북은 2014년과 2015년, 2017년과 2018년 등 2연패를 두 번씩이나 기록하면서 절대 강자로 우뚝 섰다. 승점 삭감이 없었다면 2016년에도 FC서울 대신 전북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갔을 것이다.

올 시즌과 같은 시즌별 18라운드까지의 기록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2014시즌엔 1위 전북(35점)과 2위 포항 스틸러스(34점)이 접전을 벌인 모양새였지만 2015년은 전북(37점)이 수원 삼성과 7점차였고, 2016년에도 전북(36점)이 서울에 6점 앞섰다. 2017년 전북(35점)과 울산 현대(32점)가 엇비슷했으나 2018년에는 전북(44점)이 경남FC에 무려 12점차로 리드하며 싱거운 레이스가 전개됐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도 전북의 우승 가능성은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뚜껑이 열리자 양상은 달랐다. 독주는 없었다. 대신 선두 경쟁이 볼만하게 됐다. 전북이 38점으로 같은 승점인 서울을 다득점에서 앞선 가운데 한 경기를 덜 치른 울산은 1점 뒤진 3위다. 오랜만에 3강 체제가 구축됐다. 팬들 입장에선 관심을 가질만한 선두권이 형성된 셈이다.

전북과 울산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16강에서 탈락했다. 아울러 서울을 포함한 이들 3강은 FA컵에서도 이미 떨어졌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우승 트로피는 단 하나, 정규리그뿐이다. 그래서 박 터지게 생겼다.

요즘 전북 조제 모라이스 감독의 마음은 편치 않다. 18라운드 포항 원정에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1-1로 비겼다. ACL을 병행한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체력 회복과 함께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관건이다. 모라이스의 지도력이 심판대에 올랐다고 본다. 전북은 과연 3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과 울산은 18라운드에서 2-2로 비겼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화끈한 경기를 펼친 끝에 승점을 나눠 가졌다. 그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준 한판이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까지 몰렸던 서울의 반전이 반갑다. 최용수 감독 말대로 매 경기 투혼의 축구를 펼친다. 알리바예프, 페시치 등 특급 외국인 선수의 합류와 함께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강해졌다. 그런 끈끈함은 상위권 유지의 원동력이었다. 이 페이스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울은 과연 우승 DNA를 찾을 수 있을까.

올 시즌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력을 보강한 울산은 절박하다. 우라와 레즈(일본)와 ACL 16강전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울산은 서울에 졌다면 가라앉은 분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뻔 했다. 그래서 김도훈 감독도 한 숨 돌렸다. 이제 ACL과 FA컵에서 탈락한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울산은 2005년 이후 14년만에 정상 탈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전북과 서울, 울산 3강의 우승 경쟁은 이제부터 더욱 뜨거워진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여자축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女대표팀 떠나는 윤덕여 감독

"변화 필요한 시점…부담 주기 싫어"

윤덕여 감독

윤덕여 감독(58)이 여자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윤 감독이 지난달 19일 2019프랑스여자월드컵 조별리그를 마친 뒤 귀국에 앞서 단장으로 함께 한 김판곤 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에게 '6월 말 계약종료 시점 이후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감독 선임 소위원회를 갖고 윤 감독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협회는 올해 하반기 A매치와 연말 부산에서 개최될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내년 초 2020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예선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 스포츠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윤 감독은 "협회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여자대표팀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2012년 12월 부임한 윤 감독은 한국 여자축구가 다시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015캐나다여자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역사적인 첫 승과 함께 사상 첫 16강에 진출했고, 올해 대회까지 2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을 이끌었다.

윤 감독은 "여자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죄송스럽다. 6년 넘게 팀을 이끌며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다"며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다음을 준비하겠다. 여자축구에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협회는 조만간 감독 선임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차기 여자대표팀 사령탑 선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남장현 기자

창원시청 꺾은 상주, 5년 만에 FA컵 4강행

후반 진성욱-신창무 연속골

상주 상무가 창원시청을 꺾고 FA컵 4강에 올랐다.

상주 상무(K리그1)는 2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FA컵' 8강에서 창원시청(내셔널리그)을 2-1으로 꺾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상주가 FA컵 4강에 오른 것은 2014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경기에서 상주는 정규시간(90분) 내에 승부를 내고자 했다. 체력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상주는 7월 일정이 빡빡하다. 한 달간 무려 7경기를 치러야 한다. 한여름에 접어들면서 무더위의 영향이 점점 커질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체력 부담이 두 배다.

올해 FA컵에서 상주는 대진 운이 좋지 않아 접전이 많았다. 32강(성남FC)과 16강(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모두 K리그1 구단을 만났다. 4월 17일 성남과의 32강전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해 승부차기(10-9승) 승부를 펼쳤다. 5월 15일 제주와의 16강에도 마찬가지다. 승부차기(13-12) 승부 끝에 승리했다. 무려 13명의 키커가 나선 초 접전이었다. 실제로 상주는 이후 K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데에 부담을 느껴야 했다.

후반 초반까지 상주는 창원시청을 상대로 좀처럼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후반 19분 지속적으로 상대 골문을 공략한 끝에 첫 골이 나왔다. 신창무의 코너킥을 마상훈이 헤딩으로 떨어뜨렸고 이를 문전에 있던 진성욱이 골로 연결했다. 이어 후반 40분 진성욱이 문전에서 상대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 기회를 신창무가 득점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2-0으로 사실상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상주에게는 승리를 챙기는 동시에 계획대로 체력 부담을 최소화한 일석이조의 승리였다.

내셔널리그 돌풍을 주도해온 창원시청은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으로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toto 스포츠토토

베트맨 7월 건전화 프로그램 실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이 7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인 '매일매일 3651 건전한 토토와 함께 건강하게 즐겨보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건전구매 캠페인'은 건전한 토토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1명)과 아디다스 푸쉬업바(5명), 루메나 휴대용 선풍기(10명)를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뱃볼 500개를 지급한다.

"원정팀 한화, 홈팀 LG에 우세" 52% 응답

야구토토 스페셜 58회차 중간집계

2경기 SK-롯데전, 롯데 승리가 63%
3경기 KT-삼성전, 치열한 접전 예상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3일(수)에 열리는 2019시즌 한국프로야구(KBO)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58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51.78%가 LG-한화(1경기)전에서 원정경기를 치르는 한화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홈팀 LG의 승리 예상은 32.21%로 나타났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은 16.0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LG(2~3점)-한화(4~5점)이 8.09%로 1순위를 차지했다. 이어 LG(2~3점)-한화(6~7점)과 LG(4~5점)-한화(6~7점)이 각각 7.76%와 6.23%로 그 뒤를 이었다.

SK-롯데(2경기)전에서는 원정팀인 롯데의 승리 예상이 63.61%로 나타나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SK의 승리 예상은 24.33%를 기록했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2.06%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SK(2~3점)-롯데(6~7점)이 8.74%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kt-삼성(3경기)전에서는 삼성 승리 예상(41.78%)과 kt 승리 예상(40.01%)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해 치열한 접전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8.21%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kt(2~3점)-삼성(4~5점)이 6.93%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야구토토 스페셜 58회차 게임은 경기 시작 10분 전인 오는 3일 오후 6시2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축구토토 스페셜 23회차, 1573명 무더기 적중

더블 게임 평균 3878원…건전화 정착

지난 주말에 열린 국내프로축구 K리그1 3경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구토토 스페셜 게임에서 1573명의 무더기 적중자가 나왔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6월 30일(일)에 열린 포항-전북(1경기)전과 인천-강원FC(2경기), FC서울-울산(3경기)전을 대상으로 실시한 축구토토 스페셜 23회차 트리플 게임에서 1573명의 축구팬이 3경기의 최종 스코어를 정확히 맞히며 적중의 기쁨을 맛봤다고 밝혔다.

트리플 게임의 배당률은 305.2배를 기록했으며, 총 투표수는 7만1226표로 집계됐다. 1,2경기만을 맞히는 더블 게임의 경우 28.9배의 배당률이 나왔고, 8570건의 투표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축구 스페셜은 이번 회차에서도 건강한 소액구매를 보여 성숙해진 토토팬들의 참여문화를 증명했다. 실제로 1인당 평균참여금액은 더블 게임에서 단 3878원이었으며, 트리플에서도 4286원을 기록했다.